

SKT-평창군-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행복커넥트 MoU

AI스피커 기반 어르신 노쇠 예방 시범사업 추진

**- 어르신들에 ‘인공지능 돌봄’ 제공 및 근감소증과 영양불균형 개선 나서**

**- AI스피커 기반 어르신에 운동∙식이요법 제안 ‘노쇠 예방 프로그램’ 개발키로**

**- “초고령사회 맞는 우리 사회 노인문제 선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활용 부탁드립니다** |

**[2022. 3. 4]**

SK텔레콤이 평창군∙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장일영 교수 연구팀 등과 함께 AI 스피커 ‘누구’를 기반으로 어르신들의 노쇠 예방 시범사업에 나선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http://www.sktelecom.com)과)은 평창군,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장일영 교수 연구팀), 행복커넥트, GL연구소와 함께 평창군 지역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참여 기관∙기업들은 평창군내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근감소증과 영양 불균형 개선을 위한 노쇠 예방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쇠란 비정상적으로 노화과정이 가속화된 상태로, 건강 여력이 줄어 작은 질병에도 쉽게 건강이 악화되는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근감소증, 치매, 낙상이 흔히 동반되며,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노인성 질병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서울아산병원 장일영 교수팀은 GL연구소와 함께 어르신 치료 안내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또 SK텔레콤과 행복커넥트는 시범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노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은 인공지능 노쇠 예방 프로그램에 따라 노쇠 정도를 평가하고, 운동∙식이∙인지학습을 제안받는다.

SK텔레콤은 그동안 어르신들을 위해 AI스피커 ‘누구’를 기반으로 ▲인지(두뇌톡톡) ▲정서(음악∙감성대화) ▲안전(긴급 SOS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노쇠 예방 분야를 추가∙확대하게 됐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평창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 행복커넥트,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SK텔레콤 ESG 추진그룹 담당은 “이번 시범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근감소증과 노쇠를 예방할 수 있는 진일보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를 통해 초고령화시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SKT는 앞으로도 지자체 및 민간기관, 거점 의료기관들과 협력해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 --- |
| **※ 사진설명**SK텔레콤이 평창군,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장일영 교수 연구팀, 행복커넥트, GL연구소와 함께 평창군 지역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1> (사진 왼쪽부터) 박대호 재단법인행복커넥트 상임이사, 백두원 GL연구소대표, 한왕기 평창군수, 이준호 SK텔레콤 ESG추진담당, 장일영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

**▶ 관련 문의: SKT PR실 전략PR팀 박지웅 매니저(02-6100-3832)**

**<끝>**